

##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三)

申南澈

以上에 나는 tun의 意義를 吟味함으로 말미아마 傳統에서의 難脫은 반듯이 努力 不斷한 새 進展에 對한 因惱 下에서만 當爲됨을 보였고 아울러 哲學하는 態度의 若干을 表明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傳統의 深淵에서 脫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志望하지 않는 態度는 將來 할 綜合에 對한 正立의 揚口者로서의 그것의 反對者에 對하여 保守的이고 反對的인 役割 以外에는 何等이 存在 理由가 업슴을 우리는 思想史의 冊張을 넘길 때 마다 經驗하는 바이다.

이제 韓稚振氏의 該論文을 볼 때 비록 그것이 制限된 紙面에 充分히 所懷를 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無頭無尾하게 下來한 『生存의 批判』이 『實在 探究의 航海』를 航行하여 人生 最後의 鎮營인 하나님의 聖殿』으로 그 『레퓨지』를 求하고 마렸다. 哲學 上으로 본 人生, 卽 『우리의 有限하고 不徹底한 人生』의 究口의 意義가 『하나님』(傍點筆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扯나게』하지 않는 것이었다.

生存을 批判하여 天國의 福音에의 歸依라는 것을 已往이면 더 徹底하게 立論하였드라면 그 徹底함에는 暫時 발을 멈치고 傾聽하였을 것을 『哲學적으로 본 生存』이 그 가티 淺薄하고 皮相의임에는 더구나 常識 科學哲學 等の 概論的 人間的 區別을 經過하였을 우리의 □□士의 該論文이 『哲學 上으로 본 存在의 意義』로 『본 生存의 批判』以上 筆者 傍點)을 混同하여 結局에 가서 건더기 업는 맹물로 말러버리고 마렸다 하겠스니, 間間히 力作을 新聞紙學欄에 發表하시는 韓博士로서는 반듯이 무슨 重大한 原由가 잇지 안코는 아니 될 것이다! 그 論文의 立論 過程이라든지 着眼點의 推口라든지 쏘는 讀者에게 對한 態度라든지는 그것을 『哲學 上으로』云云하기에는 너무도 常識的이고 □要的이다. 쏘 그것을 神學 上으로 一願한다면 神學이 어긋하다고 날썰 것이다. 通俗神學과 思辨神學이 信仰과 精神을 쏘한 生存을 如何히 理

解하는가는 神學校에서 教鞭을 잡고』게신 博士가 越等히 더 잘 區別하실 것이요, 또 더 잘 아실 것이다.

우에 散見的으로 그 論文의 大體를 훑터 보았거니와 그것의 不徹底와 不親切은 우에 말한 反動的 意義뿐만 아니라 一般化에 對한 俗流化에의 退步를 道德的이라 할지나 主張하는 □法임을 우리는 指摘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傳統의 死灰에 安住하여 死別한 精神을 十字軍하는 態度가 意識的이면 意識的인만치 그것의 反動性은 큰 것이다. 이제 韓氏가 所謂 『哲學의 意義와 範圍』를 明確한 形態에서 把持하지 못한 大多數의 新聞 讀者를 豫想하고 그들의 理解를 設使 不可能한 것일지언정 (決코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明確한 形態에까지 上昇시키기 爲하여 平易化를 主眼으로 하고 執筆하였나하더라도 그것은 上述한 漠然한 基督敎的 思惟 下에서 나온 더구나 獨逸的 『덴크와이세』로 써 볼 때는 도모지 理論的 缺陷이 잇는 듯한 (도리어 그것이 特色이나) 아메리카의 『덴크와이세』에서 나온 『本體論』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야만 할 것 가트나 이 點을 가지고 곧 俗流化에의 退步라고는 못하겠스나 그것의 反動的 意味에 잇서서 俗流化이고 陳腐한 通俗 神學的 立論에 잇서서 生存을 組織한 神의 支配 下에 隸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哲學 上』의 解釋이라고 하는 點에서 俗流化이다.

그는 一般化 - 數 個人的 專有物가티 보이는 哲學의 任務와 不可缺을 可能한 程度까지 그것의 嚴密과 特自性을 喪失함이 업시 大衆의 實踐에 對한 理論的 武器로써 所有케 하는 것은 企圖하다가 도리어 反動性과 租朴한 常識論으로 墮落한 그것의 俗流化를 結果하고 마렷다고 나는 好意로 解釋하려 한다.